

GM사태 위기극복 제도정비 총력

군산시, 실직근로자 긴급복지 관련 중앙부처 방문 지원대책 논의

군산시가 GM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실직근로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건의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GM군산공장 실직근로자 등이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에도 실직상태여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지원대책을 논의하고자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했다.

긴급복지와 맞춤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

망 대책으로 긴급복지 지원은 저소득층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직면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에 신속하게 지원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군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군산시의 대량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나 긴급복지 대원칙을 훼손할 수 없으며,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소

득·재산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실직의 위기상황을 특정 회사의 폐업, 특정 지역으로 한정지를 경우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군산시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중앙부처 부서들과 함께 현명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 2일 담양전시 문중으로부터 군산지역 담양전시 집안 여인들이 신행길에 사용했던 사진과 가마와 함께 사용된 '호담(호랑이무늬 담요)'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군산 근대기 생활사 연구 기여

담양전시 문중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호담' 기증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지난 2일 담양전시 문중으로부터 군산지역 담양전시 집안 여인들이 신행길에 사용했던 사진과 가마와 함께 사용된 '호담(호랑이무늬 담요)'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박물관에서 복원 작업을 진행한 오탁리 사진과 가마의 전시 이후 군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유물보존을 위해 담양전시 문중에서 가마와 함께 사용된 호담을 추가 기증한 것이다.

기증된 호담은 가로 132cm 세로 188cm 크기로, 붉은색의 겉감에 큰 호랑이 문양이 새겨져 있는 형태

이며, 잡귀를 쫓아내고 액운을 몰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사진교의 둘레에 흰 옷감으로 휘장을 두르고 지붕에는 가마덮개로 호담을 함께 사용했다.

일제강점기에 무차별적인 포획으로 인해 호랑이가 사라지고 고가였던 호랑이가 가죽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호랑이무늬가 있는 모직물로 대체되어 나온 호담은 당시 군산의 생활사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사회상까지 함께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기증된 호담은 보존처리 후에 복원된 사진과 가마와 함께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유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일반인

들이 당시 혼란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자료 등의 콘텐츠도 제공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담양전시 집안의 사진과 가마와 호담은 제작시기와 사용했던 인물 등이 확인되어 군산의 근대기 생활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증유물의 고증과 복원작업을 지속하여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해 20여회의 다양한 전시를 통해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전국체전 표어 공모전 수상작 최종 선정

2018 제99회 전국체전·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9월 2018 익산 전국체전 표어 공모전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30일간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익산시의 특성을 표현하고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역동성과 화합성 표현 등을 주제로 실시한 이번 표어 공모전은 초등학생부터 77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총 147명 284개 작품이 공모되어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다.

김성남(원광대 신문방송학과교수) 위원장과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익산시의 정체성과 전국체전을 아우르는 ▲전년승결 익산에서, 하나되는 전국체전 표어가 최우수를 차지했고 ▲풍격가득 행복익산! 감동가득 전국체전!, ▲함께뛰는 익산체전, 국민화합 감동체전! 표어가 우수 ▲전년고도 익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 ▲세계중심 천년의산 하나되는 전국체전, ▲용비하는 천년익산 함께뛰는 대한민국 표어가 장려로 선정됐다.

김성도 전국체전담당관은 "2018 익산 전국체전 표어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수준급의 작품을 공모 해주셔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수상한 표어는 익산시와 전국체전을 홍보하는 데 널리 활용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함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13일 천혜우(대표 흥갑수)에서 희망동행 기금조성을 위한 착한가게 1호점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함라면 착한가게로 선정된 천혜우는 함라산 초암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종 양소 한우 A++등급의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익산의 명물 맛집이다.

홍 대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해주는 덕분에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소외된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서 나눔에 함께하게 되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파스함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사람 나눔을 지속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공무직노조 임금협약

익산시와 공무직노조는 14일 정현을 익산시장, 공무직노조 신동범 지부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노조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날 기본급 2.6% 대인상승비와 가계지원비 인상 등 19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임금과 처우개선을 주요내용으로 다양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담겨있다.

신동범 지부장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시와 임금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무직노조는 시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임금협약 체결은 노사 상생의 산물이자 동반자라는 인식을 통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익산시를 위해 최일선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공무직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정식 출범

변영중공업 대표 김광중 초대 이사장 취임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은 14일 오전 11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군산시, 군산산업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설립추진위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찾아온 지역 조선산업의 경영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군산국가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이 자발적 출자와 협력을 통해 조선·기계 분야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해상플랜트, 발전플랜트 중소형 조선 등 사업다각화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조합 설립을 준비했다.

조합은 회원사 공동 개발, 영업, 수주 생산, 납품, 구매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사업화를 실현하고, 품질, 기술, 인공 및 공동사업장 운영 등 회원사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대 이사장에 선임된 (주)변영중공업 김광중 대표는 "비록 현재의 지역 조선산업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기업이 가진 기술을 하나하나 모은다면 위기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며 "지역 조선업체와 다양한 관련 산업 중소기업의 작은 힘을 모아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안영근 본부장은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방식으로 지역 근간 산업이 큰 위협에 처해 있지만 민간기업 스스로 상생 얼라이언스를 통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산업발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함라면 천혜우, 착한가게 1호점 현판 전달식

김정숙 함라면장은 "함라면 희망동행 지정가게에 1인1계좌 및 착한가게 40명이 매일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있으며 착한가게 1호점 탄생으로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함라면 착한가게 1호점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착한가게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착한가게란 매일 최소 3천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가게로서 지역업체들이 나눔에 동참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가게를 말한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변영로 빛꽃길 명성 되살린다

2022년까지 7억원 투입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전북도 전주·군산·김제 등 3개시와 함께 1980~90년대 변영로(국도26호선) 빛꽃길의 명성을 되살리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약 7억원을 투자해 변영로(국도26호선)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970년대 변영로(목천동 목천삼거리~오산면 신석마을) 5km 구간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으나 지난해 실시한 변영로 일제조사 결과 병해충 피해, 태풍 도로 선형 개선 공사 등으로 가로수가 없는 자리가 많고, 노령목으로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5월 까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상태가 불량한 수목은 교체하고 빈자리는 다시 식재하여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며, 상태가 양호한 수목에 대해서도 진지 등의 정비를 통하여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빛꽃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변영로 가로수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빛꽃길의 명성을 되살려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관광객도 유치하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군산

풍경, 화, 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포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